

한기총 법규개정 수정안 심층토론 의견개진

설행위 통과 ... 오는 6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집행위원회에서 법규개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오는 24일(목) 오후 2시에 임시총회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기총은 11일(금) 오후 2시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1-1차 집행위원회를 속회하여 당초 임원회에서 발의한 법규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지난 9월에 있었던 명예회

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하심토론을 통해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시되었고, 집행위원회 토론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수정하지는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한기총의 이번 법규개정은 정관과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변화발전위원회가 초안을 만들고 임원회가 이를 바

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5월 25일에 열린 제21-1차 집행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회의자료가 회의 당에서 배포되어 회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숙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정회되었다가 이번 속회에서 심의를 마친 것이다.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집행위원회의 법규개정안의 주요 변화는 대표회장을 집행위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과,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

가능이던 것에서 2년 단임으로 바꾸는 것과,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의 지역연합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를 상설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처 조직 편제도 바꾸었다.

집행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주요 내용은 선거인단을 늘, 구설 등으로 추천하는 간접방법과, 청년대의원과 총회 대의원 수를 임원회 결의로 2배수하는 것 등이다.

에딘버러 대회 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

10개 분과에서 100명의 신학자, 100편의 논문 발표



100년 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선교사대회의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10한국대회' 대표대회장 이종윤 목사가 오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열린다.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지

난 100년 동안 영미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서구 교회의 선교 전통과 열정을 회고하며, 선교에 대한 반성과 비판적 성찰을 통해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현재 한국교회의 선교의 제반 문제를 진단하고 성경적 신학적 접근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균형잡힌 선교학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

한 선교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주님의 선교 위업을 재확인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미래 대안이 제시된다.

이번 대회는 오는 22일 서울교회(이종윤 목사)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마이 올라 23일부터 24일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국제선교학술대회,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주안장로교회(나경일 목사)에서, 7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에서 선교대회가 열린다.

개회식에서는 개회예배, 대표대회장인 이종윤 목사의 기조강연, 환영행사가 진행되며, 국제선교학술대회에서는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

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0개 분과로 나눠 100명의 선교학자들이 100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인천과 부산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에서는 개막식과 기조강연, 선교세미나와 선교 발대식, 선교교과,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 발표되는 논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출판되어 향후 세계선교를 위한 길잡이로 사용된다.

1910년의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던 19세기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기독교회를 대표하여 1234명의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총 19명 포함)가 참여한 대회로서 선교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대회였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청소년불씨운동 여름파워캠프

올 여름 효율적인 관리 하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기를 원하는 학생, 자신의 재능을 찾고 꿈을 향해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캠프가 준비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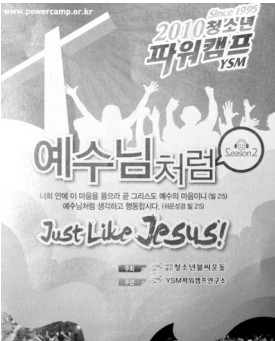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을 만나보자'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청소년불씨운동(이하 YSM)은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소장 권일남 교수)와 함께 다중지능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캠프를 개최한다.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만들어 줄 이번 캠프는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2박 3일 동안 4에 걸쳐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

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열린다. 모든 참가자들은 다중지능검사와 청소년 역량검사를 하여 교과영역과 비교교역에서의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습방법과 효율적인 시간관리 등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배우게 된다.

이번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 10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고 모둠 당 2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을 지도한다.

캠프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변화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학부모



세미나도 열린다.

YSM 대표 마삼욱 목사는 이번 캠프에 대해 "단순히 성적을 높여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깨달아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미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불씨운동에서는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자기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담임목회자, 교회학교 담임교역자, 교사들을 위한 지도자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1998년 발족하여 2008년에 범인화한 청소년불씨운동은 청소년 교육 및 캠프 전문 단체로서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영성캠프인 파워캠프를 16년간 개최해 왔다.

최고의 캠프 시설을 갖춘 파워캠프는 매년 1만여 명의 청소년들의 참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찾아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031-8005-8632 www.ynsm.org.

23만 김포복음화 위한 연합성회 열려



김포시기독교연합회 주관

김포시 복음화를 위한 연합부흥성회가 이원호 목사(소양교회)를 강사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성령회에 열렸다. 김포시기독교연합회(회장 이광열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성회에서

참석자들은 '23만의 김포시 복음화를 위한 중언이 되자'는 주제로 3일 내내 '김포시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김포시 교회의 연합을 위해, 불우이웃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대회장인 이광열 목사는 첫날 성

회 인사말에서 "이번 성회를 위해 연합회 임원들이 매일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했다"며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김포시 교회가 연합하여 김포시 복음화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첫날 성회는 김재홍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김포시장기독신우회 특송과 이광열 목사의 강사 소개에 이어 이원호 목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영준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원호 목사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놀라운 축복도 주신다"고 말했다.

이번 성회에서는 지역 교회 성가대와 김포시장기독신우회, 기독교남성합창단, 레노바레 찬양팀 등이 찬양했으며, 매일 성회 시작 전 오후 5시부터는 목회자 기도모임도 열렸다.

특별기고



총회원들의 권리행사가 우선되는 교단이어야 ...

천자(天子) 예수님을 빼고 자유민주주의이니 시장경제중심 자본주의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代贖物)로 주려함이니라" (마20:28)라고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기쁨으로 이웃을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기본 소양이 갖추어 있지 않은 사람이 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기증스러운 사기꾼들이다.

양대 이념 시절에 구소련 공산주의 창시자 레닌의 지령 제1호가 예수님이 창시한 참 자유민주주의를 멸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민주주의를 많이 말하여 용어사용 혼돈에 빠뜨려 민주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국가를 확장하여나가라"라는 것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저술한 공산주의 이론 책명이 '자본론'이다.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 세운 국가명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말 괴상하다. 지성인들을 속여 포로삼기 위해 책명과 국호를 이렇게 거짓말 위장으로 지을 수가 있을까?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위장술인데도 "인민들에게 반과 고국국을 배반리 먹이기 위해 수령 아바이는 불철주야 노심초사한다"는 설득력 있는 어조로 매년 레노드처럼 연두교시를 해오 인민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따라간다.

그리고는 인민은 300만이 굶어죽고 목숨을 건 탈북이 이어지는데도 독재자는 돌아 앉아 주지옥됨과 기쁨조 속에서 호색을 즐긴다. 어느 교단 누구는 교단 총유재산 시가 1,300억원을 사학 사유재산으로 가로채고 교사 및 신역원을 교역자 연금으로 기부하는 생애를 내면 감격해하는 추종인들과 북한 인민들과 어딘가 닮은 데가 있어 보인다. 소위 좌파 공산주의의 시작과 원조는 거짓말하는 귀신이고 더러운 귀신에서 부터 출발하여 귀신의 행위로 종결을 짓는 것이 공산주의 독재주의국가이다.

귀신은 설득력과 유혹에 명수이고 위장에 천재이다. 거룩한 진리와 성령님께 잡혀 있지 않은 지성인들은 귀신들의 좋은 먹이감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 국민들 중에 독일 국민들이 제일의 지성인 국민이다. 마르틴 루터나 디트리히 분회퍼 같은 기독교 진리이론으로 어두운 시대에 인류에 크게 빛을 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지성인들이 한때 미치광이 히틀러에 속아 히틀러를 절대지치하여 유래인 600만명을 죽이는데 직 간섭적으로 가담을 하였다.

동독 공전 독일의 반 정도는 공산주의에 속아 맹신자가 된 것을 생각하면 주 위의 지성인들이라는 것은 귀신의 농락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다. 학식이 좀 든 지성인이라 교단 탈지 말고 더 겸손히 생명의 주 예수님께 단단히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과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극치이고 민주주의의 완성의 경지이다.

말씀과 성령충만은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내 주권을 완전히 찾은 증거이다.

말씀과 성령충만은 내 자유와 내 주권을 나에게 균등하여 지배자의 지위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희생하여 봉사하는 민주주의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오순절 성령운동을 기치로 내어 가는 교단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인 무기명 투표라는 선거권을 도둑질하여야

고 국민의 알권리인 언론(혹은 난상 토론)을 억압하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아이러니라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다.

잘 지어진 양질의 농산물 곧 곡식과 채소를 파먹는 벌레의 인격들이다. 남의 인권을 억압하고 남의 권리와 남이 사용 수익하여 누려야 하는 공동총유재산을 빼앗아 독점하려는 저들은 현재와 내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당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단일 입후보시에도 총대원들의 신임 투표를 하여 임원을 뽑아왔던 전통의 교단헌법을 단일 입후보시에는 박수로 추대한다. 로 고치고는 고 무줄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만들어 히틀러 같은 미치광이 한 사람을 단일 입후보로 제조하여 임원을 뽑았다.

이제는 아예 특수계급제인 인선위원 4명을 뽑아 놓았다.

타주 대감 같은 그 인물 의정부에 박 모 어른, 창랑리에 박 모 어른, 구리시에서 모 어른, 광주에 정 모 어른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총회원의 투표권을 밀쳐버리고 4인 인선위원이 대리 투표하여 임원을 뽑고 있다. 박물권에 표본으로 전사하여 영원히 거울로 삼아야 하겠다. 그리고 고도 성령운동하는 교단 일원이란다. 얼굴과 양심이 철권처럼 굳어 부끄러운 수치심이 없어지지 오래다.

이번 본질의 이탈 분리 측에 비하여 정통통합 교단은 정말 정말 양반이다. ① 극찬한 인권중심이 있고 으뜸 민주주의가 있다. ② 하고 싶은 의견을 자유자재로 글로 써 교단지에 올리는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있고 공회청 등 난상토론이 있으며 불된 박가 내들의 인선위원들이 보란 듯이 무기명 투표하여 임원을 뽑는 젠틀한 예수님이 창시한 참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③ 3년 한시적인 특별법 하에서이지만 집행위원회나 임원회가 들쭉거리는 민주가 있으면 특별법이 엄하게 결의를 해 놓았다고 하여도 높은 민주 앞에 가차 없이 철회를 해버리는 명실공히 민주압승, 민주왕권이 있는 정통 통합교단이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기 위해 자기 주권을 찾고 자기 투표권을 찾겠다는 것이다.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기 위한 특별법과 남을 희생시켜 자기 호수머니에 퍼 담는 인선위원 회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주권재민 민주공화국 정체의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북한의 전출장군 같은 일인 우상은 허용할 수 없으며 민약에 주안에서 존재하였다면 그 횡금 우상은 여지없이 깨뜨리고 박살내어 놓아야 하며 겸손히 시도신경을 고백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중생일 뿐이다.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 사람이고 자연의 순리이다.

금세기 이후에 투표권을 도둑질하고 공동으로 함께 사용 수익을 누려야 하는 총유재산을 도둑질하여 사복을 채우는 교단은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 잃은 소금처럼 쇠뿔로 물건을 갈다가 종결로 문을 닫을는지 모른다. 총회장 선출에 총회원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가는 인권도둑질과 총유재산을 막가파식으로 훔쳐가는 도둑질에 아직도 굴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기를 못느끼고 있다.

2010. 6. 12.
이원희 목사
인권중심회

장신대 여름목회자아카데미 열려

장로회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오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여름목회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차세대 목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이장로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가 '차세대 목회', 현재 목사(영유대성교회)가 '차세대 목회를 위한 아파트 전도', 신정 목사(공영대광교회)가 '아기가 없는 한국교회', 김관수 목사(동신교회)가 '노인들이 기뻐하는 교회', 김

도일 교수(기독교교육학)가 '목회자의 창의성 개발'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초교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 목회자를 위해서는 학생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 아카데미 참가자는 장신대 목회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종합 인정받을 수 있다.